**에스겔** 3/29/20

**저자 및 기록연대:** 에스겔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 왕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갈 때 함께 잡혀갔고 (주전 597년, 2차 포로), 제사장인 그가 성전에서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게 된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가 전할 메시지가 성전과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(8-11장 및 40-48장). 에스겔은 유대 전통 뿐 아니라 국제 정세와 역사에 능통하였고 안목이 큰 자였고,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적 상징주의를 통해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. 그는 유다의 멸망 전후 20년 간 (주전 593-573) 사역했고, 본서는 그의 사역 기간 혹은 그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. (열왕기하 23:29-24:14 참고)

**주제**: 하나님의 절대 주권. 이스라엘 뿐 아니라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강조: “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”라는 말씀이 65번 나온다 (5:13, 6:7 등). 하나님의 주권은 그의 절대적인 무한성-무소부재, 자유하심-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: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며 (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그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는 분이며, 바벨론에 포로 된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강림하실 수 있는 분), 또한 심판과 은혜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.

에스겔은 주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 및 여호와 대신 열방을 의지한 죄를 책망한다.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성 및 거룩한 땅에 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, 예배를 더럽힌 이스라엘이 부정해져서 성전과 성과 땅을 더럽힘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떠나시고 그 나라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게 만들었음을 선언한다.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이키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영광을 거룩한 성에 회복하실 것이다. 에스겔서는 세계 역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나타내고, 그 메시지는 신약이 선포한 하나님이 장차하실 역사를 예고하고 있다.

**문학형태**: 대선지서들(이사야, 예레미야, 에스겔)은 스바냐서와 함께 (1) 이스라엘의 심판, (2) 열방의 심판, (3) 이스라엘의 회복의 순서로 진행되는데, 에스겔은 추가로 대칭 구조의 특징을 띠고 있다: 성전의 멸망(8-11장)과 성전의 회복(40-48장), 하나님의 진노(1장)와 위로(48장), 심판를 선포하는 파수군의 소명(3장)과 회복의 도래를 선포하는 파수군의 소명(33장),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책망(6장)과 위로(36장) 등. 선지서들은 대부분 시적 형태를 띠지만, 에스겔은 산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, 본서는 네 개의 대 환상과 열 두 개의 상징적 행동 및 다섯 개의 비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.

**개요**

1. 이스라엘의 심판 (1-24장)
2. 에스겔의 소명 (1-3장)
3. 예루살렘 포위에 관한 상징적 행동들 (4-5장)
4. 심판의 말씀 (6-7장)
5. 부정하게 된 성전과 심판(8-11장):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을 떠나심
6. 포로됨의 상징적 행동 (12장)
7.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 (13:1-24:14)
8.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(24:15-27)
9. 열방에 대한 심판 (25-32장): 바벨론은 제외됨의 특징
10. 주변 국가들(25장): 암몬, 모압, 에돔, 블레셋
11. 두로와 시돈 (26-28장)
12. 애굽 (29-32장)
13. 이스라엘의 위로 (33-48장)
14.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다시 부르심 (33장)
15.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심 (34장)
16.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 (35-36장)
17. 마른 뼈들이 살아남 (37장)
18. 대 전투 (38-39장)
19. 이스라엘의 정결과 회복(40-48장)